



특허청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과 장 김성조	02-2100-2860
		사무관 이영민	02-2100-2865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과 장 김준경	042-481-5258
		사무관 문은정	042-481-5807




2021년 6월 29일(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 공개 토론회(forum) 공동 개최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3회 지식재산 금융 포럼」을 6월 29일(화) 오후 2시 프론트원(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김용래 특허청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입주 청년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7개 시중은행 및 3개 지방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일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물적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 대를 돌파하여 총 5,461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자금이

신규 공급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IP 담보대출 지원기업 중 개인사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출은 25% 수준으로, 성장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기업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지식재산 금융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기업가,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특허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금융지원 정책을,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는 스타트업 대상 디캠프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으며, 벤처캐피탈회사인 (주)스파크랩에서는 창업단계에서 투자기관의 역할을, 한국성장금융은 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업인 (주)웰트에서 특허기술 기반의 창업사례를 소개하고 발표자와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청년기업 투자 비중을 현재 18%인 390억원에서 앞으로 30%까지 확대하여, '25년까지('21~'25년 누계) 3,000억원 규모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기업 투자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청년기업이 IP 담보대출을 위해 필요한 IP 가치평가비용 정부 지원율을 우대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IP에 대한 손실보전율도 상향하여, '20년 157억원 수준이었던 청년기업에 대한 IP 담보대출을 '25년까지('21~'25년 누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지식재산 금융·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식재산 금융·평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SMART3(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10건의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 금융과 같이 기업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금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특허청 공동으로 5천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19~'22년)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연간 3천억원 규모의 IP 보증 제공 및 4년간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20~'23년) 공급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TECH평가 체계개편 과정에서 은행들의 IP 금융 확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포럼은 ‘동산금융’과 ‘청년창업’이 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지식재산 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혁신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시장 판로개척에도 수월해 지는 장점이 있다.”면서, “2030 청년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의 꿈과 열정을 시장에서 꽃 피우고, 성공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사무국(02-3459-2922)로 문의하면 된다.

※ 불임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계획 1부.



보도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산업재산활용과 문은정 사무관(☎ 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박희승 계장(☎ 02-3459-29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목 적 : 청년기업을 위한 IP 금융지원 정책 소개 및 활성화 논의,
금융기관과 청년기업간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IP 금융 인식제고
- 행 사 명 : 제3회 IP 금융포럼 [The 3rd IPFF(IP Finance Forum)]
 - 주 제 : “2030 청년기업 IP 금융지원 활성화”
- 일시/장소 : '21년 6월 29일(화), 14:00~17:00 / 프론트원 5층(마포)
- 주최/주관 : 특허청·금융위원회/한국발명진흥회
- 주요 발표내용
 - IP 금융지원 현황과 정책(특허청·디캠프), 민간 투자자의 청년기업 투자사례(투자기관) 및 청년기업의 IP 기반 창업스토리(기업) 등
- 참석인원 : 50인 이내(오프라인) + 유튜브 중계(온라인)
 - (내·외빈) 특허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 (청년기업)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입주 청년기업, IP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등 청년기업 관계자 20명
 - (포럼위원) 7개 시중은행(산업·우리·국민·신한 등), 3개 지방은행, (신보·기보·서울신용보증재단), 투자기관 등 포럼위원 30명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4:00-14:25(25')	참가자 등록
14:25-14:30(5')	개회 전 장내 정리
	[개 회 식]
14:30-14:43(13')	■ 개회선언 :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3') ■ 환 영 사 : 김용래 특허청장 (5') ■ 축 사 :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5')
14:43-14:50(7')	기념사진 촬영
14:50-15:00(10')	휴식 및 장내 정리
	[주제발표 및 토론]
15:00-15:18(18')	■ [발표1] IP 금융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 (18') : IP 금융으로 창업에서 성장까지 - 김준경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
15:18-15:36(18')	■ [발표2] 청년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 (18') : 창업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디캠프의 지원 정책 - 김시완 디캠프 프론트원 실장
15:36-15:54(18')	■ [발표3] Spark Up your Start Ups! (18') : 창업과 성장의 브릿지 단계에서 투자자의 역할과 청년기업에 대한 제언,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IP) - 박태순 스파크랩 이사
15:54-16:12(18')	■ [발표4] 대항해를 떠나는 청년들이 알아야할 금융투자의 세계 (18') : 성장 단계에서 모험자본의 역할 및 투자펀드 운용 현황 - 박동욱 한국성장금융 차장
16:12-16:30(18')	■ [발표5] 유니콘을 향한 대항해의 시작 (18') : 2030 우수 특허 보유 청년기업 사례 및 경험담 - 강성지 웰트(주) 대표
16:30-17:00(30')	■ 토론 및 질의응답 (30') - 모더레이터 : 문현구 팀와이퍼 대표
폐회 및 정리	

□ 발표자 및 주제발표 개요

No	발표 주제	발표자	내 용
1	IP금융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 (IP 금융으로 창업에서 성장까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김준경 과장	• IP 금융지원 규모는 '20년 2조원 돌파, (주)리베스트, (주)닷 등 IP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장 • 청년기업을 위한 IP 금융지원 정책방향 소개 - (IP투자 확대) '21) 390억원 → '25) 3,000억원(누계) - (IP담보대출 확대) '21) 157억원 → '25) 1,000억원(누계) - (IP금융인프라 지원) IP 금융·평가·거래정보 제공, 신규 이용자에 SMART3 10건 무료서비스 제공
2	청년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 (창업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디캠프 지원정책)	디캠프 프론트원 김시완 실장	• 디캠프는 '12년 은행권 출연으로 설립, '20.7월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인 프론트원 개관 IP 보유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IP 전문 투자펀드 출자 진행 중 • 서비스업기반 창업시, BM특허를 활용하면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우버, 페이스북 등도 BM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3	Spark Up your Start Ups! (창업과 성장의 브릿지 단계에서 투자자의 역할)	스파크랩 박태순 이사	• 투자자는 첫째로 기업의 시장과 타겟층, 직원의 경험과 역량을 평가, 두번째로 창업가의 비전, 도전정신과 자세를 평가함 • 실리콘밸리는 혁신특허기술을 통한 창업성공의 대표 사례임, 투자자 입장에도 기업이 IP를 보유한 경우 인식이 개선되고 긍정적 평가 가능
4	대항해를 떠나는 청년들이 알아야할 금융투자자의 세계 (성장단계에서 모험자본의 역할 및 투자펀드 운영)	한국성장금융 박동욱 차장	• 한국성장금융은 약 5.6조 규모의 모펀드 29개를 운용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모펀드 운영기관 • 은행권 출자기관 및 특허청과의 동반출자를 통해 1조 6,783억원의 IP 금융투자재원 조성 • IP Sale&License back, 동일 산업군 IP 패키지화, 음악저작권 유동화 사례 소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금흐름 발생과 유동화의 기대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
5	유니콘을 향한 대항해의 시작 (우수 IP를 활용한 2030 청년기업 경험 공유)	웰트(주) 강성지 대표	• (주)웰트는 '스마트 벨트'로 유명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글로벌 선두업체와 파트너십 진행 중 • 고등학교 시절부터 발명전시회 출전 및 수상, 대학원 수학, 보건복지부, 삼성전자를 거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스토리 공유